장애인의날 특집

불자 시각장애인 양만석 씨

“보이지 않아도 함께 燈 켜면 세상 밝힐 수 있죠”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타타타’라는 노래 아세요? ‘산다는건 좋은 거지. 수지맞는 장사잖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나는 이 가사가 참 좋아요. 인생을 어쩜 이렇게 잘 묘사했나 싶죠. 우리집엔 시력 이상이 있는 가족이 줄줄이에요. 어릴 적엔 저주받은 운명 같아 고통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시각장애인들의 처우와 복지를 위해 한평생 일하는 동력이 됐죠.”

시각장애인 양만석(81세, 印明) 씨는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에서 흘러나온 노래 ‘타타타’의 가사가 인생을 관통하는 문장처럼 들렸다”고 말했다. 태어났을 때부터 시력이 거의 없었던 그는 세상을 ‘보는’ 대신 ‘느끼는’ 법을 배워야 했다. 삶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절망보단 누구보다 뜨겁게 살아냈다. 조금은 특별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고 삶 자체에서 행복을 느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널리 전하며 많은 시각장애인들의 길잡이가 됐다.



서울 종로 조계사 인근 치료소에서 만난 양만석 씨가 점자책 교정을 보고 있다. 후배 시각장애인들이 마음의 눈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업무 중 틈틈이 하는 점자책 교정은 그의 주요 일과 중 하나다.

선천적 시각 장애로 벽에 부딪혀도
배움의 길 포기 않고 27년 교사생활
제자 아픔 함께 짊어지고 편견 싸워

양만석 씨는 1944년 부산 영도에서 태어났다. 열아홉에 시각장애인이 된 그의 아버지는 울산지역 복술협회 맹인들을 이끌고 3.1만세운동에 앞장서다 주동자로 몰리게 됐고, 형사들의 눈을 피해 영도까지 숨어들었다. 일제의 폭력과 착취 속에서도 눈을 감고 자유를 외쳤던 아버지 아래서 양만석 씨는 정의와 책임의 가치를 일찍이 배웠다. 이는 훗날 그가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삶을 바치는 원동력이 됐다.

그에게 시각장애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가족의 운명이었다. 시각장애 아이가 일곱이 태어났다. 소위 말하는 ‘줄봉사 집안’이다. 남매들은 어린시절부터 시각장애를 안고 살아가며 많은 벽에 부딪혔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상심한 가운데서도 어린 자녀들을 나란히 앉혀놓고 천자문을 가르쳤다. 그가 특수학교인 부산맹아학교와 서울맹학교를 거쳐 방송통신대에서 행정학을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는 배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며 시각장애인의 교육 가능성과 역량을 스스로 증명해냈다.

자신만의 배움에서 멈추지 않았다. 2007년 3월 퇴직까지 27년 동안 서울맹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시각장애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에게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었다. 삶의 용기를 심고 자립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었다. 그 열정은 교실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제자들의 아픔을 함께 짊어졌고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웠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 정비와 직업권 보호, 치료 개선을 위한 운동에 앞장섰고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자립기반 마련에 힘썼다.

양만석 씨의 이런 삶은 불자로서의 신심과 실천이 밑바탕이 됐다.



지난해 2월 동국대 전 이사장 법산 스님, 연화원 장애인 불자들과 함께 떠난 인도순례. 기원정사에서 〈점자 금강경〉을 손으로 읽어 내려가며 독송했다.



서울맹학교에서 받은 장기근속상은 양만석 씨의 자부심 중 하나다. 27년간 재직하며 제자들에게 특수 교육뿐 아니라 불교를 알리는 일에도 앞장섰다.



종로의 개인 치료소에서 안마를 하고 있는 양만석 씨. 그는 시각장애인 자립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제자들에게 ‘빛을 보는 법’을 전수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연기에 따라 이뤄진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나니 매사 의문을 가지거나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여기 이렇게 존재함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연히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불교의 자비정신은 삶의 신념이 됐지요.”

그에게 불교는 신앙을 넘어 삶의 철학이었다. 법당에서 기도하던 손은 현실을 바꾸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다른 시각장애인들이 자신처럼 불교에 귀의해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발원하며 1980년대 후반부터 점자 경전 제작과 보급에 힘써왔다. 시각장애인도 부처님 말씀을 직접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단지 문화유산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전하고 싶었다. 뜻을 함께하는 스님과 불자들이 점점 늘었고 그 결과 혜광시각장애인불자회를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기본 불교 교리의 모음집인 〈불교성전〉 7권과 〈천수경〉 〈금강경〉 〈화엄경〉 〈우마경〉 등의 점자 경전을 보급할 수 있었다.

그는 “본격적으로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30대부터였지만 당시 점자 경전으로 접할 수 있는 불교서적이 전무해 언제나 안타까웠다”면서 “자연스럽게 나 자신의 공부는 물론 포교를 위해서 점자 경전 보급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신행생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불교계와 연대해 장애인 권익 보호와 치유 활동에 적극 나섰다. 혜광시각장애인불자회와 원심회 등에서 점자 지도 봉사를 펼쳤고 교육이 부족한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안마, 침술 등의 의료 강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도로 활동했다. 시각장애를 가진 도반들이 처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은 것이다.

이타행은 비단 시각장애인들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맹아학교에서 안마, 침술, 지압 등의 교육을 받은 그는 66년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의 도움으로 무료로 배운 기술을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고 발원했다. 동료, 제자들과 함께 세심한 손끝

신심 · 실천 밑바탕 자비정신 신념으로
80년대부터 점자 경전 제작 보급 나서
“어둠 속에서 빛 보는 법 알려주고 파”

감각과 침만을 가지고 전국 각지를 돌며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고 40년 넘게 봉사를 이었다.

물론 언제나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사회의 무관심, 제도의 한계, 그리고 같은 장애인들 사이의 이견까지. 때론 동료들의 냉소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 더 넓고 연대의 가능성을 찾았다.

퇴직 후 종로에서 개인 치료소를 운영하며 정부로부터 장애인 활동 사업을 지원받아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함께 이끌어 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개인의 영리를 넘어 제자와 후배들에게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다.

“함께 등을 켜야 어두운 곳을 더욱 밝힐 수 있다”는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남을 도울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본인에게 주어진 행복이라고 말한다.

“어둠 속에서 켜놓은 불등(佛燈)이 오늘도 누군가의 길을 비추고 있다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겠죠.”

